위계에서 얽힘으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동물관계

(From Hierarchy to Entanglement: Human-animal Relations in the Age of Posthumanism)





위계에서 얽힘으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동물관계 From Hierarchy to Ontarglement: Human served Relations in the Age of Front humanism

NAMES AND RESTRICT TO SEA SHEARS AND DAY DO SEA AREAST AND SEASONS AND SEASONS

25 C.7 J. 2011 (16 CO CONTRACTOR STATE OF CONTRACTOR AND CONTRAC



0:

1. 연구 개요 및 목적

- ▶ 포스트휴먼 시대 등장하고 있는 생명과 생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인간-자연, 인간-동물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와 규범을 넘어 공존과 얽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 연구팀은 인간-동물 관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얽힘"을 드러내고 포스트휴먼시대 인간-동물관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구축(동물인격, 동물인구, 동물인식)하고, 인간-동물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며, 생태정치 및 생태미학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한 구체적 연구결과물을 축적 하여 지속적으로 자연과학기반 동물연구와 인문사회과학 동물연구의 융합적 성과를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포스트휴먼적 문제의식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여 결합하여 기존의 인간중심적 동물 연구, 혹은 인간-동물 연구를 넘어 새로운 이론적 기반과 연구의 틀을 개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과정에서 비결정론 이론(amorphous theory)에 기반하여 얽힘(entanglement)의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자 한다.
- ▶ 현재 생태위기, 포스트휴먼 시대적 전환 속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서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동물원 푸마 사살에서부터 유기동물 구호와 길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학대, 그리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간-동물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규범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동물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알 수 있듯이 동현대인과 동물은 반려적(companion) 관계에 들어서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동물관계의 변화에도 기존의 인간-자연 혹은 인간-동물 관계를 규정하던 근대적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체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그러한 이분법이 근대적 학제구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인간-동물관계 연구는 자연과학의 동물연구,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융합을 도모하여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2. 연구성과



▶ <동물, 원> 영화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토론회 개최 (서울대 수의대 스코 필드홀, 2019. 11. 29.)

-토론자: 왕민철 감독, 김기흥, 박효민, 이동신, 이항, 조윤주, 주윤정, 천명선

-참가자: 유관 전공 및 해당 분야 관심있는 학생 등 현장 참석

- 진행 내용: 영화 상영 후 토론 및 감독과 의 대화



- ▶ "관계와 경계" 1차 웨비나 <팬데믹 상황 에서의 동물의 취약성>
- 일시: 2020. 6. 26, 15:00
- 참석자: 연구진 외 온라인 참가자 40여 명
- 발표자 및 주제 구성
- ① 팬데믹의 시작: 인간, 가축, 야생동물의 접점 (이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 ② 팬데믹 상황의 동물원 동물(최태규, 청주 동물원)
- ③ 인수공통감염병 팬데믹 상황의 가축(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 ④ 팬데믹 상황의 동물을 위한 법과 제도(이 형주, AWARE)



- ▶ 관계와 경계" 2차 웨비나 <인간과 동물 의 '적절한 거리'>
- 일시: 2020. 7. 3, 15:00
- 참석자: 연구진 외 온라인 참가자 40여 명
- 발표자 및 주제 구성
- ① 근거리 입양과 원거리 입양 (권헌익/김정미, 서울대 인류학과)
- ② 차이에서 사이로: 인간-동물 관계와 거리두기 (이동신, 서울대 영문학과)
- ③ 야생의 거리와 공존의 생태계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 ▶ "관계와 경계" 3차 웨비나 < 포스트 코로나 인간-동물관계: 질병과 산업을 중심으로 >
- 일시: 2020. 7. 10, 15:00
- 참석자: 연구진 외 온라인 참가자 50여 명
- 발표자 및 주제 구성
- ① 질병생태에 대한 이해 (황주선, 국립환경과학원)
- ② 질병관리 관계망-인간-질병 : 동물-질병 관리 (김기흥, 포항공대)
- ③ 육식의 미래와 인공육의 이슈 (박효민, 서울시립대)



- ▶ "관계와 경계" 4차 웨비나 < 포스트 코로 나 인간-동물관계: 생태정치와 실천 >
- 일시: 2020. 7. 17, 15:00
- 참석자: 연구진 외 온라인 참가자 50여 명
- 발표자 및 주제 구성
- ① 항구 재난시대의 인간평화와 지구평화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 ② 우포늪 야생거리두기 관찰로 사람과 자연 공생 지속가능 관광 모색 (이인식, 우포자연학교)
- ③ '스튜어드십'(책임성): 코로나19시대의 생태시민성 (박선영, 씨에스환경연구소)
- ④ 생명의 취약성과 다양성, 생태적 전환 (주 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 『관계와 경계: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동물』(2021. 01. 28 출간, 포도밭출판사)
- "2020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연속 웨비나 '관계와 경계'"의 내용을 엮어 단행본으로 출간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취약성과 동물의 취약성은 어떻게 얽혀 있으며, 인간보다 훨씬 전염병에취약한 동물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메르스,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인간-동물질병 방역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살펴봄. 코로나19의 발생부터 대처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동물이 맺고 있는 촘촘한 관계 자체와 그사이 생태적으로 올바른 공존의 거리에 대해 이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연구팀의 학자와 각 분야 전문가, 활동가 등이 한데 모여 이룬 인간-동물 관계 연구의 최신 논의와 성찰을 담음

- ▶ Junior Scholar Colloquium 및 연구진 북세미나 (2020. 10 ~ 현재)
- 1차: 반려동물 생애사 연구 & 버지니아 울프『플러쉬-어느 저명한 개의 전기』
 -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발표자: 주설아(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교실)
 - 주제: 반려동물과의 삶, 그 관계 양상의 일관성 혹은 다양성 그들이 함께한 삶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서사적 접근)
- 2차: '보호종에서 동반종으로 :조류 센서스의 공간-지식 실행과 철새 생명 정치들'
 - 일시: 2020. 12. 4, 16:00
 - 장소: Zoom 회의실
 - 발표자: 성한아(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3차: "야생의 미래로" - 옮긴이 김산하 박사와 함께하는 『활생』(Feral) 북세미나

- 일시: 2021. 1. 18, 20:00
- 장소: Zoom 회의실
- 발표자: 김산하 박사(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인간-동물 연구 네트워크 연구진)

4차: '국내 남방큰돌고래 야생 방류와 관련 현황' & 『자연의 권리』(David R. Boyd 저) 북세미나

- 일시: 2021. 2. 18, 15:00
- 장소: Zoom 회의실
- 발표자: 김호경(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5차: '페미니스트 환경계획 - '내성천의 친구들' 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2021. 3. 25, 16:00
- 장소: Zoom 회의실
- 발표자: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환경공간정보 및 방재 연구 실 박사 수료)

▶ 2020년 전문가 초청 워크숍

'트라우마 경험자,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회 속에 만연한 트라우마 알아보기'

- 일시: 2020년 12월 22일 15:00 (zoom)
- 발표자: 유정 교수 (서경대학교 / 인지심리학적 트라우마 연구자)

- ▶ 내부 연구진 워크숍
- (1) 2019 '제주 인간 동물 생태 정치' 워크숍
 - 일시: 2019.7.13(토)-7.16(화) 3박 4일
 - 장소: 제주도 (강정마을, 돌고래 생태지역, 비자림로 등)
 - 참석자
 - 연구진: 천명선, 조윤주, 주윤정, 박효민, 주설아
 - 활동가 및 관련 주제 전문가: 김순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활동가), 엄문희 (활동명-멸치/ 강정마을미술관, 제주시민포럼프로젝트 열개의 문 활동가), 진경표 (제주 녹색당 위원장, 공동위원장), 박서현 (제주대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바로식 (활동명-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김선 (비자림로 활동가), 박은서 (비자림로 활동가), 황용운 (비자림로 활동가), 래리 버마이스타 (오하이오 대학 농촌발전사회학 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현혜경 (제주문화재단), 백가윤 (다크투어 활동가)

(2) 2020 하계 제주 워크숍

- 일시: 2020.08.18 (화) 10:00-16:00
- 장소: 제주 더큐브리조트 회의실
- 참석자: 이동신, 주윤정, 조윤주, 천명선, 박효민, 김기흥, 김호경, 주설아

▶ 융합주제강좌 개설: 인간과 동물 (2020년도 2학기)

- 진행기간: 2020년도 2학기
- 담당 교수: 이동신, 천명선, 김석호
- 특강 교수: 권헌익(캠브리지대), 김기흥 교수(포스텍), 주윤정 박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교과목 개요
 - 본 융합교과목은 인간-자연, 인간-동물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와 규범을 넘어 공존과 얽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적, 사회적 노력을 다룬다.
 - 포스트휴먼시대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동물관계 생태적 문제와 위기에 대한 이해는 더욱 필요하다. 인간-동물관계와 관련된 이슈는 생활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실천적 의사결정으로부터 국가의 정책 및 국제적 협력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한다.
 - 수의학, 문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들의 융합적 대화를 통해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의 수강생은 인간 사회 속 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와 맥락을 인간-동물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인간-동물 관계의 대표적인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3. 추후 추진 계획



- ▶ 해외 학자 초청 인간-동물 관계 북세미 나 개최(2021년 5~11월, 4차 예정)
-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학술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 해외 학자 초청 온라인 북세미나로 개최
- 인간-동물 연구 분야의 학자 4인 초청하여 그들의 주요 저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간-동물학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강연 및 토론 진행
- 국내 관련 분야 신진 연구자들과의 정보 교류 및 토론의 장 마련

▶ 융합주제강좌 교과서용 단행본 출간 계획

- 출간 예정 일시: 2021년 상반기

- 목차(안)

서론 (이동신)

제 1 장 동물과 이론

애니미즘의 역사 (권헌익)

신유물론과 ANT 그리고 동물연구 (김환석)

동물, 감정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이동신)

제 2 장 동물과 사회

동물과 사회학 (박효민)

역사와 문화 속 동물탐구: 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음 (천명선)

질병 경관에서 인간, 질병과 동물-구제역과 메르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흥)

제 3 장 동물과 정치

인간-동물 관계와 생태정치 코스모폴리틱스(주윤정)

시민운동과 시민성 맥락에서의 동물 (김석호)

길고양이 관리의 역사 (조윤주)

부록) 숫자로 보는 인간-동물 관계 (김석호, 권시정, 주윤정)

▶ 연구주제별 개인/그룹 연구활동

- Animal as Individual
- 환자로서의 동물에 대한 이론적 틀 고찰 및 경험연구 수행 (천명선/이항)
- 임시보호 중인 고양이와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인격(기질)의 변화와 인간의 인식 연구 (조윤주)
- 노동하는 동물(안내견, 사역견 등)의 현황 조사 (천명선/주윤정)
- Human-Animal Relations
- 인간-동물 관계의 "비결정성 이론" 논문 출판(이동신)
- ○「동물과 사회학(Animals and Sociology)」 번역 및 출간 준비(박효민)
- 반려동물 생애사(반려동물의 질병과 죽음을 중심으로) 연구 지속(천명선)
- 동물-인간-병원체의 관계 이론 고찰 및 경험 연구 수행(김기흥)
- 동물과의 만남을 통한 생태운동가의 생태적 자각에 대한 연구(김호경/천명선/이항/주윤정)
- Human-Animal in Common World
- 현대사회에서 야생성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담론을 재검토하는 도서 출간과 대중 행사(김산하)
-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정치의 영역들에 대해 현지조사(우포늪, 순천만, 철원, 제주 지역의 생태정치) 생태정치의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 및 조사를 통해 생태정치에 대한 이론 및 실천 연구 심 화(주윤정)
- 동물친화 도시 지표 총괄, K-\$DG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파트에서의 육상 생태 지표 개발 (김석호, 주윤정)
- The Good Earth: Anthropology and Global Ecology 라는 제목의 영문 단행본 집필 계획 (권헌익)

4. 연차별 연구 내용 요약

연차	구분	Animal as Individual	Human-Animal Relation	Human animal in Common World
1년차	이론적 고찰	동물 인격/주관성 동물 인구	다종 민족지/행동 인간-동물 관계 동물-인간-병원체 (탈식민화/생명정치)	생명-시민권 생명사회성 (biosociality) 생태정치 생태미학
2년차	경험 연구	동물 인구 조사방법 개발 동물 인격 (personality) 조사	인간-동물상호작용연구 설문조사(인식조사) 다중민족지 (살처분, 생애사)	지역생태정치사례연구 생태미학 콘텐츠 개발
3년차	연구의 활용	인간-동물 융합 복지 정책	인간-동물 관계 정책 지표 개발	생태정치 및 생태미학 확산